

# 솔로몬이 받은 축복과 실패 -열왕기상-

열왕기상 4:29-34, 마태복음 12:42-45

정윤돈 목사님

## 요약

서론 : 열왕기상 전반부 - 솔로몬에 대한 설명

1. 솔로몬이 받은 축복

2. 솔로몬의 실패와 그 이유

결론 : 솔로몬의 인생에서 연어야 할 교훈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복음의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속에서 인생의 소중한 축복과 해답과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이 재창조되게 하시고, 천 년의 응답을 받는 새로운 시작이 바로 지금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과 부족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복음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지금 일본 히로시마에 귀한 성도들과 선교사님이 목사님과 함께 축제를 열게 됩니다.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시, 일본복음화와 세계복음화의 새로운 시작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서론 : 열왕기상 전반부의 내용 요약

오늘은 열왕기상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다. 제목은 ‘솔로몬이 받은 축복과 실패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왕상1장에서 11장까지의 범위가 되겠다. 열왕기상은 모두 22장으로 되어 있는데, 11장까지는 솔로몬에 대한 내용이다. 어떤 사람이, 솔로몬이 지혜의 상징이니까, 아들에게 솔로몬 같은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다고 한다. 나중에 그래서 경영학과를 갔다가 솔로몬 저축은행에 취직해서 일했다고 한다. (웃음) 이건 아니다 하고 때려치우고 회계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 나도 솔로몬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 같은 지혜로운 인물이 되라고 한 줄 알았다. 그런데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솔로몬같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솔로몬이 붙잡지 못하고 놓쳤던 많은 것들을 깨달을 수 있었다.

(1) 1-11장의 내용을 먼저 요약하면, 1-2장은 어렵게 솔로몬이 왕이 되는 장면이다. 그냥 읽으면 ‘아, 솔로몬이 왕이 되었잖지? 다윗이 밋세바를 사랑했고 밋세바가 낳은 아들이니 쉽게 왕이 되었잖지?’ 생각하게 되지만, 실제 읽어보면 굉장히 어렵게 왕이 된 것을 알 수 있다. 다윗이 솔로몬을 낳은 것은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으로 추정된다. 밋세바에게서 낳은 첫 아들은 범죄에 대한 벌로 죽는데, 학자들은 그 사건 후 1-2년 만에 솔로몬이 태어난 것으로 연구하고 있다. 솔로몬은 다섯째 아들 정도 되는데, 다윗이 밋세바를 범한 사건이 40대 후반이다. 다윗이 70세에 죽는데, 그러면 솔로몬이 왕이 된 나이가 12-21살 정도 될 것 같다. 대체로 램넛트 시절이다. 그러니 왕이 되어서 일천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다. 어린이가 아닌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21살이다. 형도 네 명이 있었다. 왜 이런 나이 계산을 하는가?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첫째 아들인데, 르호보암은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낳은 아들이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된 나이를 12살로 보기는 힘들 것이다. 왕상1장에 보면 솔로몬에게 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아버지의 말을 한 번도 어겨본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니 모든 백성들이 아도니아라는 형을 따랐다. 심지어 요압과 세사장들도 형을 따르는 상황이었다. 이때 급하게 선지자가 와서 언약을 되새기게 한 결과, 갑자기 왕이 된 인물이 솔로몬이다. 그 내용이 1-2장에 나온다.

(2) 3장에는 일천번제를 드리는데, 그럴 수밖에 없다. 너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왕이 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만 매달릴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많은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 원래 솔로몬이 천재로 태어났지만, 아무리 천재라도, 너무 많은 백성을 너무 어린 나이에 다스리면서 너무 많은 대적과 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었다. 그래서 일천번제를 드리게 된다. 일천번제에 대해서도 천 번 예배를 드렸다는 주장과 천 마리의 제물을 드렸다는 주장으로 나뉘고 있다. 어느 쪽이 확실히 맞다고 할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1천에 대한 사건이 또 뒤에 나온다. 솔로몬이 시작은 일천번제로 시작했는데, 말년에는 일천 명의 아내가 있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 번 찬양을 하다가 천 번 노래방을 가게 될 수 있다. 천 번 메시지를 녹취하고 듣는 것과 천 번 스마트폰으로 게임하는 것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다를까. 천 번 예배드리러 가는 것과 안 좋은 세상 장소에 천 번 가는 것은 어떻게 다르겠는가. 그 차이가 이렇게 극명하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쏟아서 헌신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변했던 것이다. 나는 읽으면서 많은 것을 묵상했다. ‘아, 인간이 이렇게 약하구나. 우리 램넛트들이 성공한 다음에 변하지 않도록 정말로 도와야 되겠다!’ 램넛트

들이 대학만 가도 변질되어 버린다. 이렇게 연약하다. 그래서 어렸을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각인시키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3) 그 후로 5-8장에 보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고 13년 동안 궁궐을 건축했다. 믿음이 좋았다. 집을 짓기 전에 7년 동안 하나님의 집을 먼저 지었다. 그런데 변질되었다. 9장에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 다윗이 죽기 전에도 솔로몬과 언약을 했다. 이 약속을 지키면 대대로 축복을 받았지만 어기면 대대로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세 번이나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그런데도 솔로몬 역시 말년에는 영적 치매에 걸려 버린다. 받은 응답을 잊어버린다. 다윗왕도 백성을 계수했다.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었다. 둘 다 치매에 걸렸던 게 아닐까 싶을 정도다. 그런 극단적인 모습이 나타난다. 왜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보게 하셨는가? ‘너희는 그러지 말아라, 너희 후대는 그러지 말아라, 변질되지 말아라’ 하는 의미 아닐까. 하나님이 물질도 땅도 국가도 권력도 다 주셨는데, 나중에는 이런 부수적인 것에 빠져서 하나님을 놓쳐 버리고 변질되어 버린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다.

(4) 10장에는 솔로몬의 전성시대가 나오고, 11장에는 솔로몬의 변심과 죽음이 나온다.

## 1. 솔로몬이 받은 축복

나는 과거에는 솔로몬처럼 지혜로워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런데 솔로몬을 묵상하면서부터, ‘아, 솔로몬같이 되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신 이유가 이것이 아니겠는가 싶다. 물론 솔로몬 같은 천재가 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좋은 지혜와 총명한 두뇌를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변질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여러분 후대 중에서 솔로몬보다 더 뛰어난 서적이 일어나면 좋겠다. 그래서 소문이 났으면 좋겠다. “아니, 참사랑교회에 갔더니 후대들이 천재가 많아. 참사랑교회에서 예배드리면 천재가 나온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으면 좋겠다. 기도하는 자녀들은 다르다. 태영아 어머니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0세에서 2-3세 아이들을 공동 육아하기 시작했다. 찬양하고 예배하고 정말 영적 서적, 기능의 서적이 반드시 될 줄 믿는다.

그런 의미에서 역사상 있었던 천재들을 찾아보았다. 레오나르도 다 빈치, 셰익스피어, 괴테, 피라미드를 건축한 건축자들, 미켈란젤로, 뉴턴,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들이 천재로 꼽히고 있다. 20세기 이후의 천재들 이야기도 있는데, 존 폰 노이만이 라는 사람이 있다. 우리와 관계가 깊다. 이분이 완전기억능력-포토그래픽 메모리 (photographic memory)를 가지고 있었는데, 눈에 찍히는 대로 다 기억하는 것이다. 책을 읽으면 단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한 번에 다 기억할 정도의 기억력을 가지고 있었다. 책을 한 번 보면 전체를 기억하는데, 쭉 외우는 게 아니라 물어보면 위치를 알았다고 한다. 추정 아이큐가 250-300으로 생각되고 있다. 어렸을 때부터 7개국어를 완벽하게 구사했다. 우리와 너무 멀리 있는데, (웃음) 램넛트들은 기죽지 말기를 바란다. 여러분은 솔로몬보다 지혜로운 분들이다. 솔로몬이 깨닫지도 못한 복음을 깨달았으니까. 노이만은 컴퓨터의 중앙처리장치를 제일 먼저 설계한 사람이다. 그 혜택을 우리가 받고 있는 셈이다.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할 이유가 있다. 노이만도 미국의 유대인 집안에서 태어난 천재였다. 어릴 때부터 성경만 읽어도 이런 지혜가 생기는 것이다. 윌리엄 제임스 시디스(William James Sidis, 1898-1944)라는 사람은 11살에 하버드대학에 최연소로 입학했고, 16세에 우등생으로 졸업했다. 2년 후에 하버드 법대에 다시 입학했다. 그런데 행복하지 않았다. 여론 때문에 너무 시달리다가 뇌출혈로 일찍 죽었다. 이 사람도 러시아계 미국인이면서 유대인인 사람이다. 한국에도 김용용이라는 분이 있는데, 4살에 구구단을 외운 후 7개월 만에 미적분을 풀었다. 지금도 살아계신다. 일본 NHK 방송에 출연해서 미적분을 풀기도 했는데, 아이큐 테스트를 8시간동안 받았더니 210이 나왔다. 아이큐 테스트가 생긴 후 3번째 되는 사람이다. 1977년에 죽은 이휘소라는 분은 물리학에서 워낙 천재여서, 일리노이 주에서 세미나 준비를 하다가 교통사고로 죽었지만,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핵무기 개발을 위해서 이분을 초청한 상황이었다. 오죽하면 미국 정부가 이것을 두려워해서 사고사로 죽이게 했다는 소문이 돌 정도였다. 미국 원자력연구소 소장이었던 오펜하이머는 아인슈타인과 이휘소와 같이 일해 보았지만 아인슈타인보다 이휘소가 뛰어났다고 했고, 노벨상을 수상한 학자 세 사람도 자기가 노벨상을 수상한 이유가 이휘소를 만났기 때문이라고 할 정도였다. 여러분 후대 중에서도 천재가 나오기를 바란다. 믿음과 지혜를 가진 후대가 나왔으면 좋겠다.

(1) 모든 축복을 다 받은 전무후무한 인물이었던 솔로몬  
대다수의 사람들은 말한다. “내가 천재였으면 좋겠다. 부자이면 좋겠다. 권력을 얻으면 좋겠다. 멋진 사랑을 해 봤으면 좋겠다. 문학, 예술 재능이 뛰어났으면 좋겠다. 인기를 얻었으면 좋겠다.” 어떤 여자 램넛트는 가수가 되고 싶다고 하더라. “왜? 노래가 좋아? 사실은 인기 때문이지?” 솔직하게 말했다. 가수가 인기를 끄는 게 너무 부럽다는 것이다. 이게 영적 상태.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하는데, 세상의 인기를 더 좋아한다. 그러면 영적 문제가 생긴다. 마12장의 그 영적 상태. 솔로몬 이야기를 하면서 일곱 귀신이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하신 것은, 솔로몬의 상태가 그랬다는 말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 것을 사랑하면 이런 영적 상태에 빠질 수 있다. “역사에 남는 건물을 짓고 싶어.” 믿음 좋은 사람들은, “멋있게 성전을 남기고 싶어.” 이런 모든 바람을 다 성취한 사람이 솔로몬이다. 레오

나르도 다 빈치는 왕이 되지도 못하고 돈을 벌지도 못했다. 모든 것을 가진 사람으로는 솔로몬과 같은 사람이 없었다. 성경은 이것을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했다. 솔로몬의 첫째 왕비는 애굽의 바로의 딸이었다. 솔로몬의 영토는 애굽에서 유브라테 강에 이르렀다. 애굽의 인물, 유브라테 동편의 모든 인물과 왕들보다 더 뛰어난 인물이었고 그 정도로 영화를 누렸다고 성경은 기록한다.

(2) 솔로몬이 받은 구체적인 축복

- ① 솔로몬의 인생을 축복과 실패로 나뉘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이 축복을 받은 것이다. 솔로몬은 40년 왕 노릇 가운데 반대자가 없는 태평성대를 누렸고, 선지자 나단, 브냐야 장군, 다윗의 용사들이 모두 솔로몬의 충직한 신하가 되었다.
- ② 초창기에는 굉장히 좋은 믿음도 가졌고, 지혜와 넓은 마음도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 같이 하시니.” 왕상4:30에는,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다고 했다. 잠언 3편을 지었고, 음악적 재능을 가지고 1,005편의 노래를 지었다. 식물과 동물에 관한 지식도 뛰어났다. 왕상4:33에는 초목에 대해서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부터 담에 나는 우솔초까지 다 알았다. 잡초를 연구하신 분이 말했다. “잡초를 다 연구해보니까 잡초라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다 아름다운 것들이었다.” 솔로몬이 부인이 많았으니까 여자들과 놀기만 했다 하면 그렇지 않다. 책도 많이 썼다. 그리고 짐승과 새,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해서까지 연구했다. 전도서를 보면 철학적으로도 아주 깊은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 공부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전12:12을 보면, “내 아들이,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이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우리 램프들이 공부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다. 솔로몬 정도 되어야 이런 말을 할 수 있다.
- ③ 또, 역사상 가장 넓은 땅을 소유했다. 다윗도 초기에는 유다지파만 다스리다가 나라를 통합했지만, 솔로몬은 그보다 더 넓은 땅을 가졌다. 태평성대의 시대였고, 성전과 함께 아름다운 궁궐도 건축했다.

2. 솔로몬 말년의 실패

그러나 솔로몬의 말년의 실패를 우리가 왕상 11장을 통해 볼 수 있다. 이 본문을 보면 솔로몬이 왜 실패했는지, 어떤 상태였는지 알 수 있다.

(1) 솔로몬의 실패

- ① 왕상11:1 이하를 보자.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이다. 3절에, “왕은 후궁이 칠백 명이고 첩이 삼백 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나는 후궁과 첩이 없다고 생각하실 것이다. 어떤 여자 전도사님은 눈물로 기도했다는데, “하나님, 솔로몬은 천 명이었는데 왜 나는 한 명도 없습니까.” (웃음) 아직도 혼자 사신다고 한다. 그래도 그게 축복이다. (웃음) 그러면 우리에게는 그런 문제가 없는가? 나의 후궁이 뭐가?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가는 것이 있지 않은가? 영화는 천 편 보면서 말씀은 한 편도 안 본다. 게임이 나의 후궁일 수도 있다. 나의 영혼을 쪼먹는 것이 무엇인지 묵상해 보라.
- ② 4절을 보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와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이 지혜로운 솔로몬이 종교다원주의에 빠져 버린 것이다. “내가 믿는 하나님만이 옳겠느냐. 너희 동네에서 가져온 신이 있으니, 그것을 너희가 섬겨라. 그것도 괜찮다.” 이게 W.C.C.(World Council of Churches)다. 종교다원주의다. 지혜 있는 사람들, 신학을 깊이 한 사람들이 이리로 빠진다. 솔로몬도 그랬다. 처음 시작은 그렇지 않았다. 오직 여호와였다. 그런데 공부를 너무 많이 하고 인간관계를 너무 많이 하다가 다원주의에 빠져 버렸다. 우리의 사명과 천명은 이 다원주의에서 복음을 지키는 것이다. 솔로몬 같은 사람들 속에서 이 복음을 지켜야 한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공부도 잘 하고 책도 많이 쓴 지혜로운 솔로몬 같은 사람을 어떻게 이기겠는가.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솔로몬보다 나은 사람이 나오게 되어 있다. 마12:42을 보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솔로몬보다 더 크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있으면, 솔로몬보다 더 뛰어난 인물도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복음을 그들에게 증거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란다.

(2) 솔로몬이 실패한 이유

- ① 그렇다면 말년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난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자기 성공에 도취되었다. 그래서 사단이 일곱 귀신을 데리고 와서

성전을 건축하기 전보다 더 타락하게 만들었다. 마음에 탐이 있었는데 이것이 사단에게 이용당한 것이다.

- ② 결국 솔로몬은 자신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을 세우는 쪽으로 가 버렸다. 세상 문화, 프리메이슨, 뉴 에이지, 유대인의 율법주의로 빠져 버렸다. 메이슨이라는 말이 석공이다. 제일 먼저 나온 프리메이슨이 솔로몬의 성전을 지었던 히람, 즉 두로 왕이었다. 이 사람이 원래 다윗과 친했다.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 하니가 백향목과 함께 건축 기술자들을 보내 주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방 신을 섬기던 사람들이다. 그러니 솔로몬의 성전을 지은 전문인들도 다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이다.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에 대한 답례로 20개 성을 히람에게 주었지만, 히람이 이 땅을 보고 짜증을 낸다. 이런 마음을 가진 왕이 성전건축에서 많은 일을 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세상 마음과 세상 수준을 가진 사람이 주류가 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다윗은 큰 죄를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꾸짖자 그 자리에서 회개했다. 다윗의 죄는 드러나니까 회개를 쉽게 했다. 그런데 솔로몬의 잘못은 드러나지 않았다. 우상, 지식, 전문성으로 조용히 스며들었다. 종교, 대학의 문화가 TV로, 전문성으로 조용히 들어온다. 취미, 예술, 문화 활동으로, 결혼을 타고, 조용히 들어온다. 이것이 솔로몬의 생각을 뒤집어 버렸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다가오고 있다. 속지 말아야 한다. 솔로몬의 인생을 보면 서 나는 너무 중요한 것을 발견했다. 만약 이 이야기를 서울대 나온 사람에게, 교수들에게 이야기하면 알아들을 수 있을까? 나는 아니라고 본다. 하버드 교수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천에 하나, 만에 하나도 어렵다고 본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 하셔서 남은 자로 우리를 세우시고 선택하셨다. 여러분은 서울대 교수, 하버드 교수, 어떤 왕이나 과학자들도, 노벨상 수상자들도 깨달을 수 없는 것을 깨닫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는지 상상할 수 없는 것이다.

- ③ 솔로몬은 결국 영적 서민, 홀리메이슨은 되지 못했다. 솔로몬이 타락한 이유가 뭐가? 자기 성공에 도취되어 처음 신앙을 잃어버렸다. 새가족이 되어 왔을 때, 구원받았을 때, 어렸을 때의 신앙, 순수한 그 신앙,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던 그 모습, 처음 신앙을 잃어버렸다.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첫 신앙을 겸손하게 놓치지 않으시기 바란다.

- ④ 자기 지식, 세상적인 것에 도취되고, 정략결혼이라는 인간적 수단으로 평화를 유지하려고 했다.
- 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을 끝까지 가졌다면 이렇게 넘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만의 시간, 개인화된 시간을 놓치고, 세상 것에 조금씩 내 영혼, 내 시간을 털어넣은 것이다. 이것이 솔로몬에게 말년의 이런 문제를 낳게 만들었다. 이방 여인을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건축과 문화 활동, 취미 활동에 도취했다. 결국 우상 문화에 빠져 버리고, 후대에게 나라가 쪼개지는 문제를 남기고 말았다.

결론 : 솔로몬의 인생을 통해 붙잡아야 할 교훈

우리가 솔로몬을 통해 붙잡아야 할 미션과 기도제목이 있다. 첫째, 정확한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성전을 아무리 잘 지어도 무슨 소용인가. 성전을 백향목으로 짓고 금으로 장식해도 하나님은 그 성전을 버리셨다. 제사를 많이 지냈다. 몇 만 마리 제사를 지냈다. 그러나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의미를 모르니까, 성전 짓고 망하고 제사 지내고 망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망했다.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우리 후대에게 이 사실을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 솔로몬처럼 되면 안 된다는 것을 각인, 이해시켜야 한다. 제대로 이해하고 감동이 되어야 각인이 될 것 아닌가. 잘 설명해 주어야 한다. 둘째, 우리 신앙생활을 일심, 진심, 지속으로 평생 변함없이 해야 되겠다. 셋째, 우리 후대들이 참된 영적 서민, 복음의 천재, 홀리메이슨의 축복을 반드시 받게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후대와 함께 세계복음화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미션을 주신 것을 믿는다. 이 소중한 사역에 주역으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한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너무 부족하지만, 솔로몬보다 더 뛰어난 믿음을 허락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솔로몬보다 더욱 행복한 인생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금도 주셨지만, 앞으로 더 풍성한 응답을 우리 자신과 후대와 교회에 주실 줄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지켜 주옵소서. 솔로몬이 누렸던 태평성대가, 우리나라에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유지되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이 정확한 복음의 언약과 내용이, 저희를 통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가족들에게, 친족들에게, 우리 민족에게, 북한 땅에 이르기까지, 땅 끝까지 이르러, 증거될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